

## 50 | 자동차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2-3, 3-4, 4-5 추간판탈출증 및 만성요추염좌

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높음
----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S는 1993년 A사 B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 1월 23일경 작업 중 요추부에 통증이 발병하였다. 이때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이 계속되어 2007년 1월 23일 경추 2-3, 3-4, 4-5 추간판탈출증 및 만성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S는 1993년 12월 A사 B공장에 입사하여 셀조형반에서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 축 셀몰드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95년 7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산재 요양 차 휴직, 행정 업무 수행 등으로 셀조형반에서 근무한 기간은 5년 5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S가 행한 주작업 중 목/몸통 부위의 부자연스런 자세를 발생시키는 작업들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작업별로 RULA 최종점수가 3~6점으로 위험수준이 보통~높음으로 분석되었다. REBA를 이용하여 몸통부위에 대한 위험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몸통부위의 위험도는 80%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시간 노출비율에 따른 위험수준을 분석한 결과, 목부위의 경우 “수용 가능”한 작업으로 분석되었고, 몸통의 경우 “조금 위험” 작업으로 분석되었다.

###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S는 1995년 9월 요추, 양견, 양슬부 관절통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7년 7월초 사내업무차 운전 중 사고로 3일 정도 경추 염좌로 치료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00년에도 허리염좌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1년 8월경에는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2002년 3월 경부터 같은 부서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1월 23일경 작업 중 서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요추부에 통증이 발병하였고, 또한 목 부위가 굳어서 좌우로 목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여서 이때부터 허리와 목의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2007년 1월 23일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임상진찰, MRI, 신경전도검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후 경추 2-3, 3-4, 4-5 추간판탈출증 및 만성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자문의 소견 및 병원 진단영상학적 의뢰 소견에서 경추 MRI상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기 사업장 부서의 동료근로자 중 2008년 산재요양처리된 경우가 요추부 염좌 3건, 요추추간판탈출증 1건, 급성경추부염좌 1건이 있었다.

### 4 | 결 론

근로자 S의 상병 중

- ① 만성 요추부 염좌는 1995년 업무상 상병의 과거력, 인간공학적 분석결과, 장기간의 업무수행(5년이상), 동료 근로자의 산재요양처리에 비추어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 ② 경추부의 수핵탈출증은 인간공학적 분석결과 위험수준(RULA)이 보통~높음으로 평가되나, 작업시간 노출비율은 수용 가능한 작업으로 분석되었고, 영상진단학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탈출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며, 과거력상 개인적인 요소(사고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료근로자의 산재요양처리에 비추어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